

# 민주당 '바람' vs 황주홍 '조직'

**6·13 격전지를 가다**  
■강진군수

지난 30일 오후 12시50분께 강진을 쓰레기종합처리장. 더불어민주당 이승욱(61) 후보와 민주당 평화당 광영체(70) 후보가 잇따라 환경미화원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년을 앞둔 환경미화원 장종식(60)씨는 "작업장에 화장실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작업장에 화장실이 없어 급할 때면 생리적 현상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장씨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환경미화원들의 생리적 고통조차 돌보지 않는다면 군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욱 후보는 장씨의 손을 꼭 잡고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조 강진군지부 신창민(45) 교육부장은 "무기계약직인 일반공무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2013년 강진군수와 공무직노조가 일반공무직의 호봉제 전환에 합의했는데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영체 후보는 "교육청 공무직 직원들은 이미 호봉제로 전환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진을 중앙로사가 조정연(61) 회장은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바람 선거로 흐르고 있다"며 "유권자 권리를 충족시킬만한 실현가능한 공약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편중되지 않는 상권개발 정책과 대박상권을 열어 줄 후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사를 짓는 김주영(53)씨는 "능력이 검증되고,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군민과 오랫동안 호흡하며 남은 문제들을 과감히 해결할 군수를 원한다"며 "쌀 농사 위주의 강진 산업구조를 특화농산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개발하고 실행할 추진력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행보도 분주해졌다. 차량에서 쪽잡을 하며 하루 18시간 강행군 중이다. 강진군수 선거는 2강1약 구도다. 민주당 이승욱 후보와 평화당 광영체 후보가 2강을 형성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도 두 후보의 판세가 '박빙'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바람'이나, 황주홍 조직이냐가 관련 포인트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의 압승이 점쳐졌다. 하지만 3선을 바라보던 강진원 현 군수의 민주당 경선 탈락이 변수가 됐다. 특히 경선 막판

민주당 이승욱 對 평화당 광영체 판세 '박빙' ... 서로 승리 자신 이, 일자리 창출·인구 늘릴 것, 경제살리고 교육고장 육성

강 군수와 이 후보간 네거티브가 앙금을 남겼고, 이는 민주당 결집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의 선거전략은 '당당하고 강한 집권여당 후보'다. 이 후보는 면사무소 직원에서부터 출발해 군정·도청 고위간부에 오른 '지방행정전문가'라는 점이 강점이다.

그는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와 인구유입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공약했다. 또 농축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상·공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강진 봉마르프터덕 조성 등 관광산업 육성, 주

	이승욱 61·민 정당인	광영체 70·평 정당인
재산	6억6233만원	2억9003만원
병역	병역필	병역 미필
세금	6099만원	71만원
전과	전과 1건	전과 1건
학력	호남대학교원 행정학박사	전남대학교원 교육학석사
주요공약	·일자리 창출로 소득 증대·인구 유입 ·농·축·수산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상공업 적극 육성을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창출·경제 살리기에 행정적 집중 ·딱 한번 4년만 무보수로 봉사 ·청소년 대상 명품교육 지원

거환경개선 등 복지공동체 실현 등을 약속했다.

광 후보의 선거전략은 '딱 한번 4년만 무보수 봉사'다. 재선에 도전하지 않고 임기 4년간 열정을 바치겠다는 약속이다. 그는 '맹목적인 1번 찍기'를 경계했다. 중앙 정치가 아닌 지방자치 선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 후보는 "군민이 원하는 것은 경제살

리기"라며 "농축수산업 육성, 남도답사 1번지 관광브랜드 가치 제고, 강진을 상권 살리기 등 자립도를 높이는 데 최우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교육자답게 인구감소 문제 해법으로 명품 교육고장 조성을 제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민주당 이승욱 강진군수 후보가 31일 유세차량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평화당 광영체(오른쪽) 후보가 31일 강진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환경평가 주민설명회

7일...20일까지 초안 공개

광주시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시는 31일 "오는 6월 7일 오후 2시 광주도시철도공사 5층 대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현황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설명회와는 별도로 오는 6월 20일까지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계획과와 5개 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개해 시민들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7일까지 공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맞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로 연장은 17.002km(정거장 20개소, 차량기지 1개소)다. 1단계 구간에는 건물 25동, 컨테이너 4동, 비닐하우스 3동, 한전주 126본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했다. 공사 시 주요 영향으로는 지하 굴착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지하수 영향,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과 비산먼지 증가, 강우 시 토사유출 등이 예상된다. 운영 시에는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진동 등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저감방안으로, 세륜·세차시설 설치, 굴착시 유입수 배출, 대체관정 개발,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을 제시했으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운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대책 외에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생긴다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광주에 들어선다. 센터는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결과 사실인 경우 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시는 31일 "광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 낭비 사각지대 발생, 기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성과 미흡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예산낭비신고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조례는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및 예산낭비 주민감시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관련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신청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조치결과 사례에 대해서는 외부 공개가 가능하며, 예산낭비신고 등을 통해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다.

경우 신고자에게 성과금,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낭비신고, 현장조사, 예산제도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오는 6월 19일까지 광주시 예산정책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양경제청장에 김갑섭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제6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김갑섭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임명됐다.

전남도도와 경남도도는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인 광양경제청장에 김 전 부지사를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거쳐 임명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신임 김 청장은 전남지사 권한대행을 역임하면서 광양경제청 협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나주 출생인 김 청장은 광주제일고·조선대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원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순천부시장, 전남도 경제통상국장·해양수산국장·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oticon PEOPLE FIRST**

#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 062-364-8800

#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평안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